항상 나는 나 자신과 남을, 내 안의 나를 나와 비교해가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 힘이 원동력이 되는 때가 있어 지금의 나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은 일상에서도 적용되던 탓에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와 같은 배배 꼬인 듯한 생각도 가지게 했다. 항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에 자신의 생각은 배제하고 남의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처음 만나는 나날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을 조금 더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면 “어? 괜찮은 사림이네.” 라고 하는 경구가 많았다. 이것은 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탓에, 자신 이외의 사람을 깊이 있게 판단하고 바라 보는 일은 사실, 항상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 소모되는 감정적인,시간 등의 이유로 인해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탓에 처음 사람을 만날 때에 내기준을 중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첫 인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내 잣대로 걸러내고 사귀어 왔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 해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내 잣대의 판단 기준에 따른 분류법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내 중심적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놓쳤을까 생각한다. 사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내 이기적인 프레임 탓에,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놓쳤을까. 항상 생각했다. 남 이라는 것이 가지는 일종의 중압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만큼 가지게 되는 중압감은 분명히 인생을 평생동안 살아가며 저울질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로써 이 문제를 따지자면, 아직 나에 대해 내가 아는 것도 아니면서 현재의 내 잣대로 끊임없이 남을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다. 이주제가 왜 행복이란 파트에 있는 것 일까. 수업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다. 내가 정확히 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행복의 종류는 나에게서 오는 행복과 남이란 존재에서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에 대한 행복은 나의 성장과 성찰, 자기애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남과의 행복은 남과 함께, 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사회적인 소통에서 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공감과 해소에서 느끼는 행복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남을 행복에서, 자기의 기쁨에서 빼 놓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닐까?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내가 되려고 한다. 내 프레임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방어적 사고에서 나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이 오는 만큼 불행 또한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에, 그런 감정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당연하다고 느끼기에 잊어버리기 쉬운, 분명 잊으면 안 되는 감정이지만 불행이란, 남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오랜 시간 가지게 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자기 방어로 이어지는 감정인만큼, 잊을 수 없을 수 만큼 많은 불행을 겪었고 당해왔기에 나는 남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을 최소화 시키되 없애지는 못 하는 것 같다. 결국 인생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이라면,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남을 나쁘게 바라보진 않되 나를 나쁘게 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프레임 가지고 싶다.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지만, 객관적인 나와 나를 위한 나의 적절한 합의점을 항상 찾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한다.